



"어... 언제나 왕처럼 모시는 킹 마트"입니다!



그때, 점장 겐지는 본사 영업사원에게 잔뜩 혼나고 있었지.



우리 킹 마트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점장!



손님에게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은!

아... 아, 저기...



대걸레를 입구에 세워 두다니, 상식이 있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언제나 왕처럼 모시는 킹 마트"!



잊기 전에 다시 한번, 복창!

맞아요, 손님은 왕입니다! 이걸 항상 명심하세요!



아... 네!

세모김밥 진열상태가 엉망이에요! 매실은 왼쪽 끝! 연어는 가운데!

제4화
야마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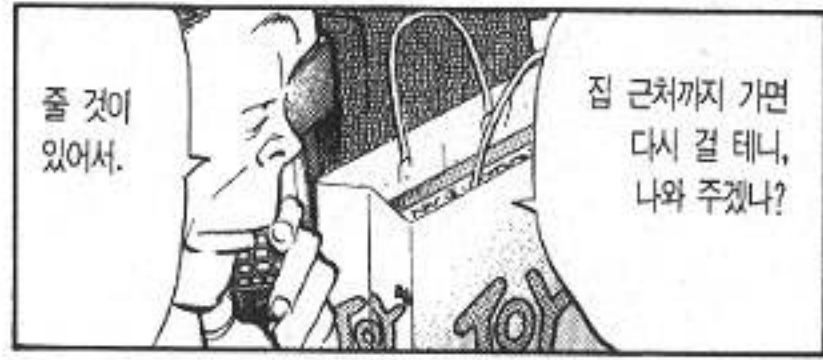
이제 그쪽으로
가려는 참인데.

아니...
일은 다
끝났는데,
응...



네,
여보세요
...

아...
히로시,
자넨가...



줄 것이
있어서.

집 근처까지 가면
다시 걸 테니,
나와 주겠나?



아... 아니,
아무튼 나중에
전화하겠네,
그럼...

쇼해도
할아버지가 온다고
진득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장인 어른,
그러지 마시고
집에 와서 좀
있다 가세요.



오늘은
손주 녀석의
생일이라네...



아...
장인 어른
...



...



"친구"
수사는
거기까지
끝났다고요...?

...그래서
점장 켜지되는
더 이상 탐문을
못 하고...



?

아니
...



그래서
...?

히.



나는 그 길로
당시의
담임교사를
만났지.



RRR!!



잠깐 실례.



이상한
얘기...?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네.





달려갔을 때는
2시간이나 늦어서,
폐회식까지
끝났지...



네...

어릴 때
운동회를
하잖아?



딸이 출전하는
릴레이를
꼭 보겠다고
약속했는데...



딸의
결혼식 때도
3시간이나
늦었지.



그야 뭐,
형사는 일이
일이니만큼...



...



피로연 때
꽃다발도 친척이
대신 받아 줬대...

손을 잡고
같이 들어가긴
고사하고,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화가
왔을 때도...



그럼 오늘은 오랜만에
따님 가족들과 화기애애하게
생일파티를 갖겠군요,
할아버지!

아니...



아...
그래.



아아, 그래서
피카푸인가 하는
장난감을 사셨군요?



사이가
안 좋아서...

내 딸
유미코와...



왜요?

그럴 수도
없는 게...



워랄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따님과...



초 씨답지
않게.

웬요?



아무래도
잘 안돼...

아니...
이것만은
...



아마 씨,
나는 이제
1주일이면
정년일세.



아니, 지금은
그런 일
얘기보다...



췌 씨...



"친구"얘기를
계속하세.



그런 바보가
그동안 쌓아 온
직감으로 하는 말이야.

나는 평생 일만 하며
살면 된다고 믿어 온,
대책 없는 바보일세.



그러니까 자네가
이어받아 달라는
걸세!

이 사건은 앞으로
엄청난... 아니,
더욱 엄청난 일로
발전할지도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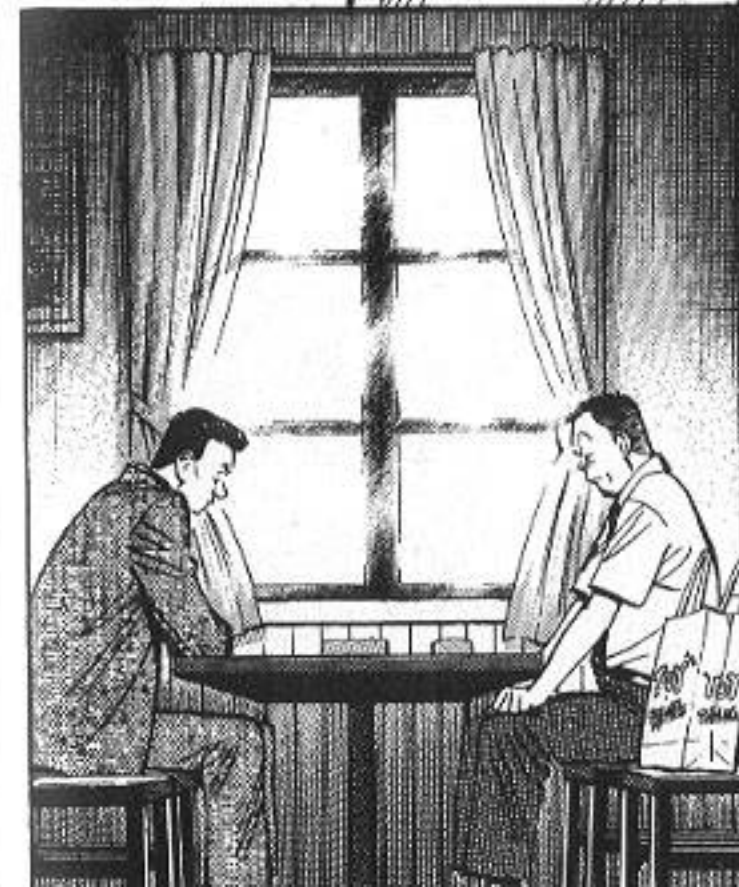
"친구"와 췌지의
담임교사가
당시를 떠올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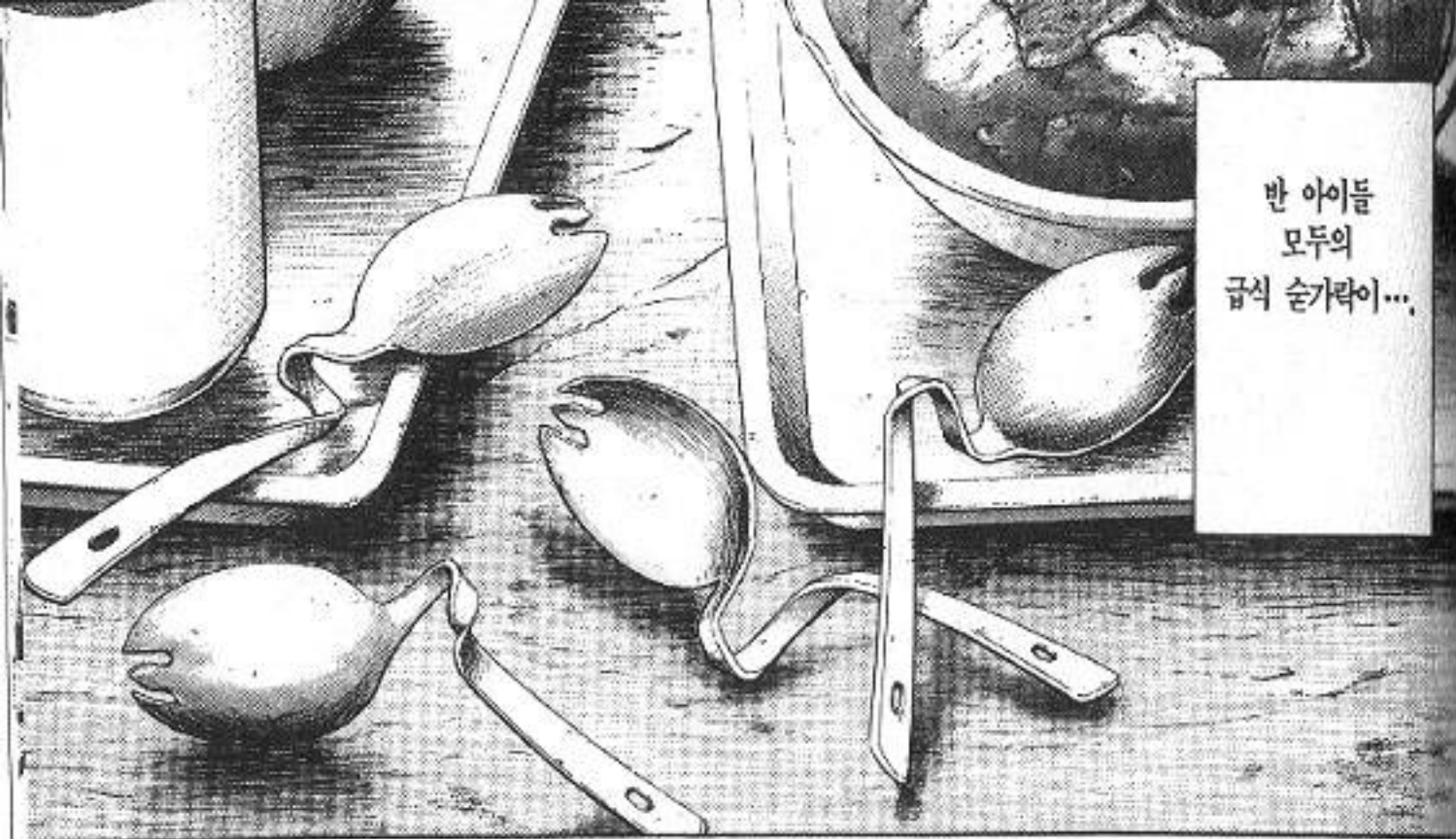


유미코는 그 후로
나와 말도 안해...



4시간이나 늦게
병원에
도착했지.





반 아이들
모두의
급식 숟가락이...



보자
...



이들 중
누가...?

누가
했습니까?



그게...



누가
했는지...

생각해
냈습니까?
선생님은...



RRR
...



아...



7년
졸업생이라...

이런 말을
했었지...



숟가락 구부리기
사건이
우리 반에...



뭔가
생각났습니까,
선생님?



그렇만도 한 게,
완전히 구겨져
있었으니까요...



숟가락
구부리기...?

그래요...
그땐 얼마나
놀랐는지.



한 시간쯤 늦는 건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왔요.



가...
가도 되니?
유미코...



여보세요
...



금방 가마...

금방...



유미코...



뭘 한가하게
앉아 있는
겁니까?



아마 씨
...



빨리
왔요.



이제 곧
쇼헤이의
생일 파티가
시작될
거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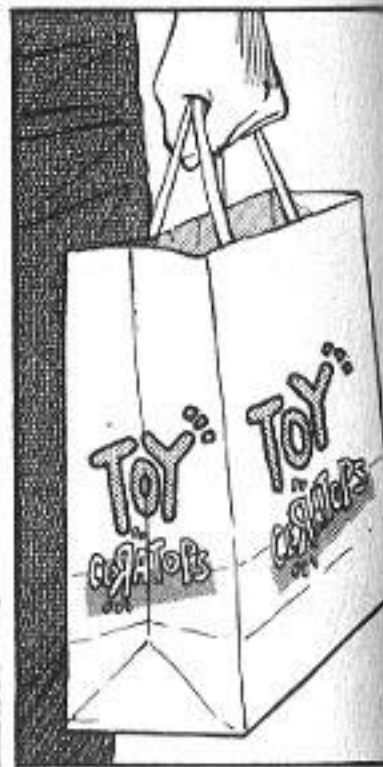
아빠...



야마 씨...



이 사건은 앞으로 내게 맡기세요...



자, 알론 손자에게 가서야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고맙네, 야마 씨...



죄송합니다. 제 언동 때문에 일이 복잡하게 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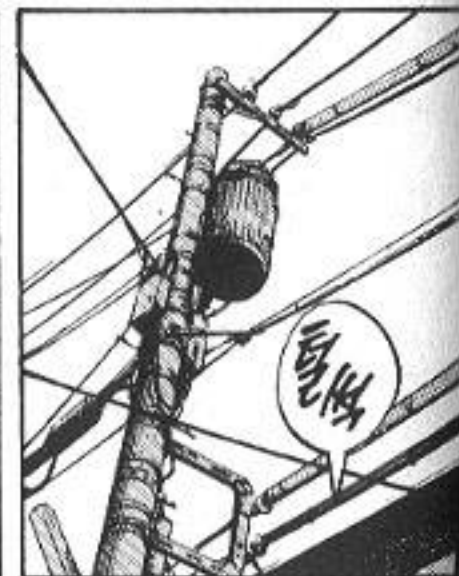
관찰아요, 자신을 가지세요!

무슨 소림니까? 초 씨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썩스럽네요.



제가 진짜 "친구"를 만났더라면 이런 일은...

...예, 그 형사는 너무 많이 알아 버렸습니다.



...예, 제가 책임지고...



"절교"해 두었습니다.



순정만화는
질색이어서,
소년만화만
읽었다.



순정만화에 나오는
멋진 남자 같은 건
있을 리 없으니까.



하지만
그때...



백마를 탄
왕자님 같은 건
있을 리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때...



아...
네!



저기-
잠깐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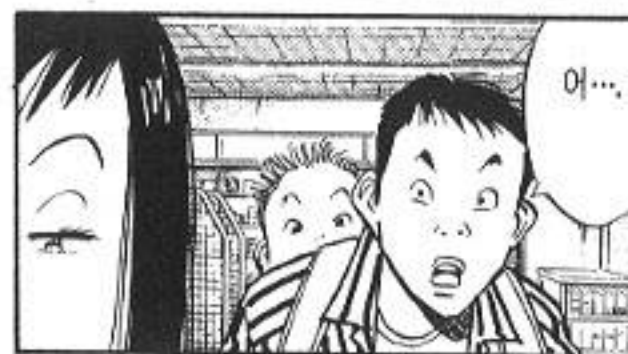


저희 복사기는
엽서 사이즈가
안 돼서...

아...
죄송합니다.



이 복사기,
엽서 사이즈론
복사 안 돼요?



아...



손님에게
그따위로 말하다간
또 본사에서 한 소리
들을걸.

뭐야,
유키지.
너였냐?



백마를 탄 왕자님은,
어쩌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제5화

인류멸망의 때



결혼은 했나,
애는 낳았나,
술데 없는 소리들만
할 텐데!

어차피
너 하나도
안 변했구나—
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하지만
그러는 너도
누나 애나
봐주는
신세잖아.

그래,
난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어.



아... 아니,
아무 것도
아니야...



역시라니,
뭐가?

역시 너
그런 얘기랑
인연이 없나?



?



자!
명단 여기
있으니까
부쳐!



오랜만에 만나면
대개는 꿈이 깨져서,
역시 안 만나면 좋았다는
생각이나 하게 된다구.



뭐... 뭔데,
이게...?

반창희 안내
무더운 여름도 지나고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래 7년 6학년 3반
반창희를 영가로 하였습니다.
피부사과라도 꼭 참석해 주세요.



자!
그럼 이거,
나머지는 켜지,
네가 해!



초등학교
반창희!

6학년
3반...



아...
그래.



반창희
안내장 원고.

반창희라니
...?



다 들어서
옛 친구 얼굴
보면 뭐해?

난 너무
싫어.



말해 두는데,
난 이런 일
주관하는 거
질색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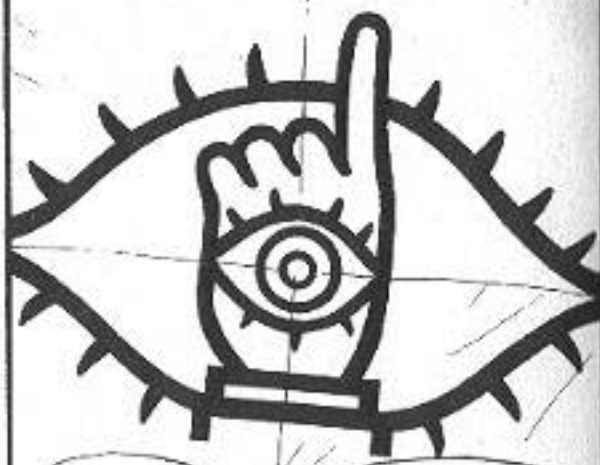


그리고 동기가
자살했어...



많은 사람들
모아서
뭔지 알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친구"란 남자가
이걸 심벌마크로 삼는
의문의 단체를
만들고



넌 이것
어떻게 생각해?



.....



물론
오초의 연락처는
불명이야.



부치라니,
내가 하라고?

내가 여기까지
알아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무튼 그게 현 주소가
밝혀진 사람들이야.



술 마시고
옛날 얘기나
꽃피우자고 하는 게
아니아!

잘 들어,
이 반창회는
그걸 위해
하는 거니까!



그래, 어릴 때 이 마크를
고안한 남자가 행방불명...



정말
못 알아봤어?

오초의
행방...



오초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모으는 거야,
알겠어?



아이,
정말 놀랐죠.



인도?



그 상사
직원의 말로는
...



설마 싶었지만
말을 걸어 보니
정말
그 사람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제 눈을
의심했지
랍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죠.

하고 있는
차림은
정말...



오초는 9년 전
상사에서 일할 때
타이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1주일간
행방불명됐었어.



또 하나,
재미있는 정보를
가르쳐 줄게.



...그래서
?



난 그 후의
소식을
알고 싶어서
여러 모로
조사했어.

그 사고 직후에
회사를
그만뒀지...



인도에서.



어디서?

같은 시기에 타이에 부임해서,
오초에 대해 잘 알고 있던
경쟁사의 직원이
8년 전에 그를 목격했다.



오촌...



왜 안 왔어...?



아... 아니...



어...

지난번 피해자 모임... 왜 안 왔어?



아...

이제 됐어... 그럼 반창화 업서 잘 부탁해.



...



옛날의 너였다면...



티베트로 가는 길ियो.



아니,
그럼 안녕.



뭐?

역시
안 만났으면
좋았을걸...



아...
유키지...



정말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



?



밴드를
그만왔다는
것도...



말하지
마...



저기...
나...



학기의 왕자님은
변명 같은 건
안해.

변명
같은 건...



난 있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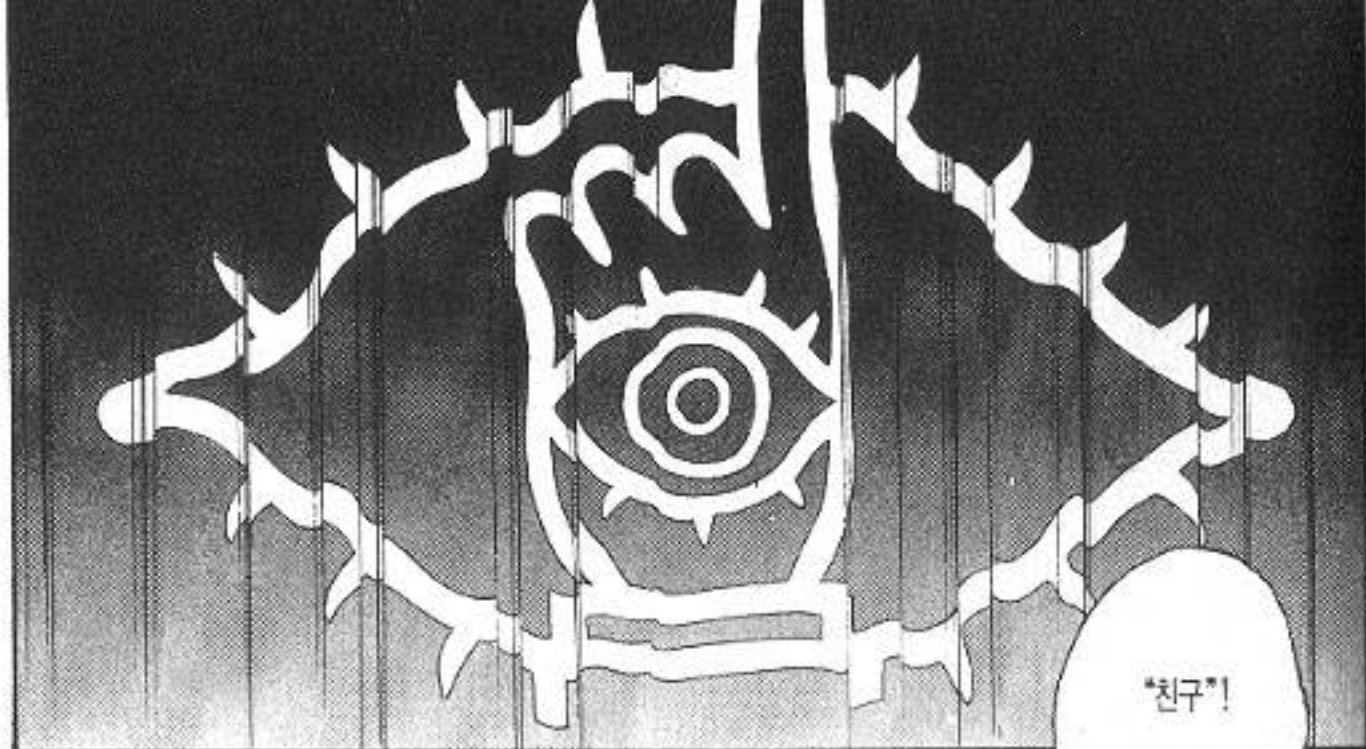
이것 때문에
밴드도
그만왔거든...

나...
밴드 했던 거
알아?



이 애랑 엄마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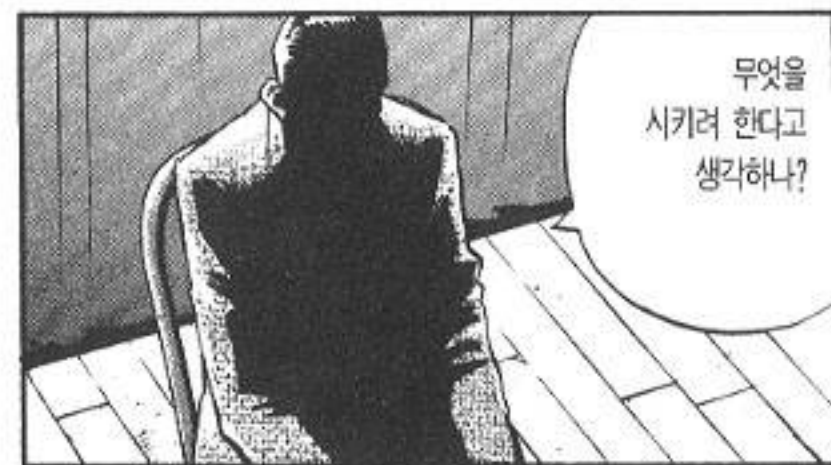
난... 저기...
이 가게를 어떻게든
꾸려나기야 하고...



"친구!"



요즘 많은 종교자들이
우주의 의지에 의해
"절교"당했는데...



무엇을
시키려 한다고
생각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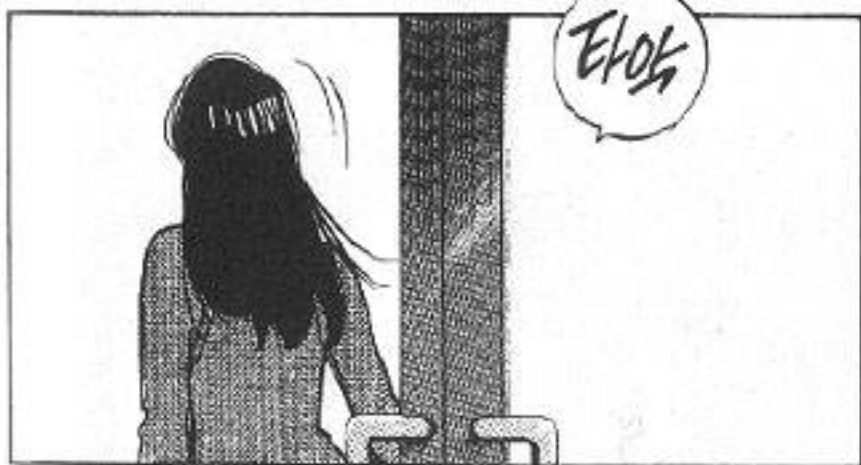


아아아

네!
역시 종교의
통일이겠쥬.



우주의 의지는
그것으로
"친구"에게
무엇을 시키려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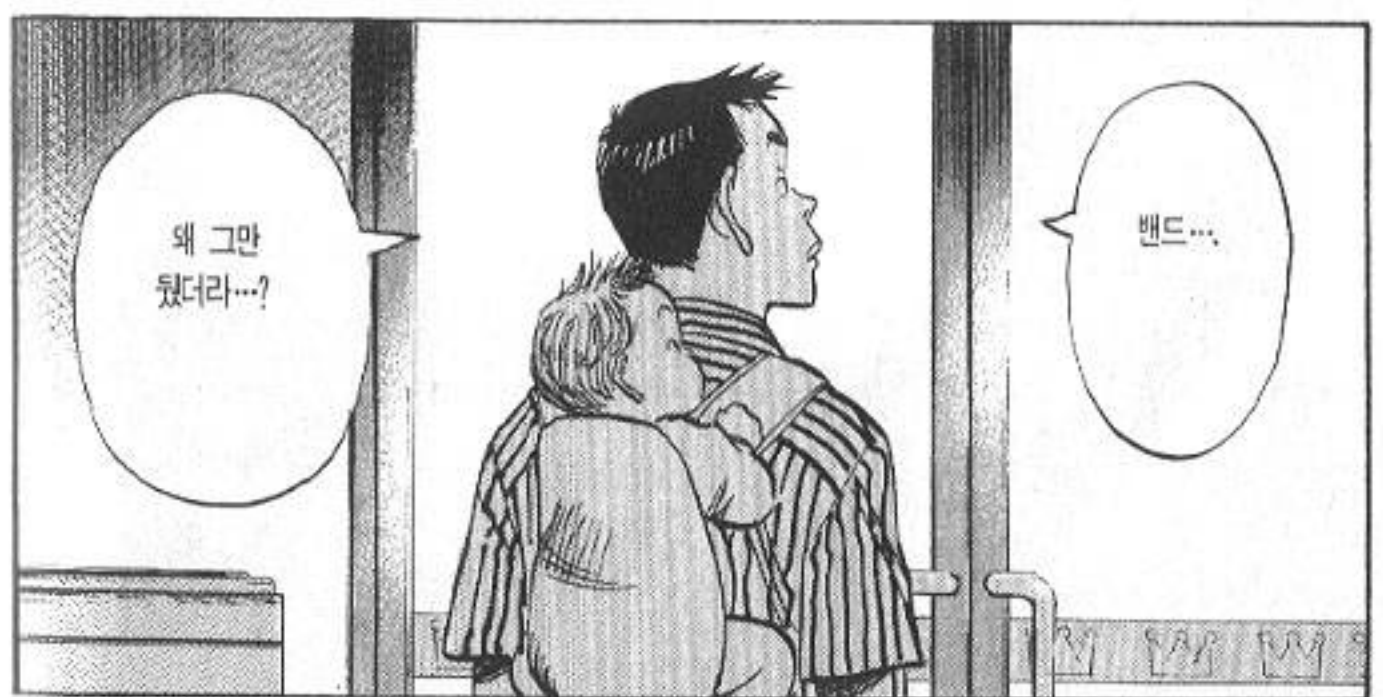


타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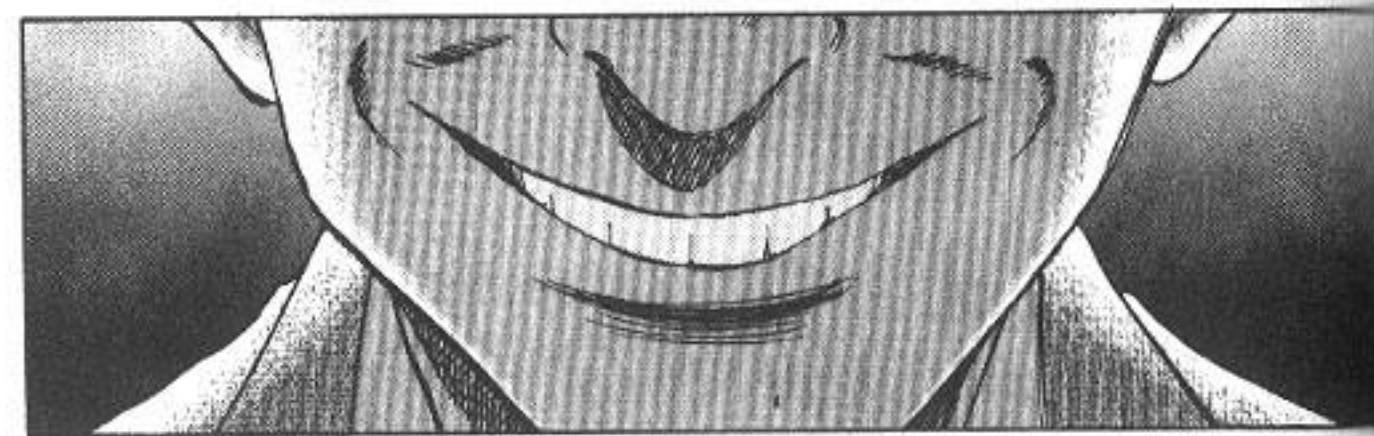
때문이었
나고...?

정말
그런 이유...



왜 그만
뒀더라...?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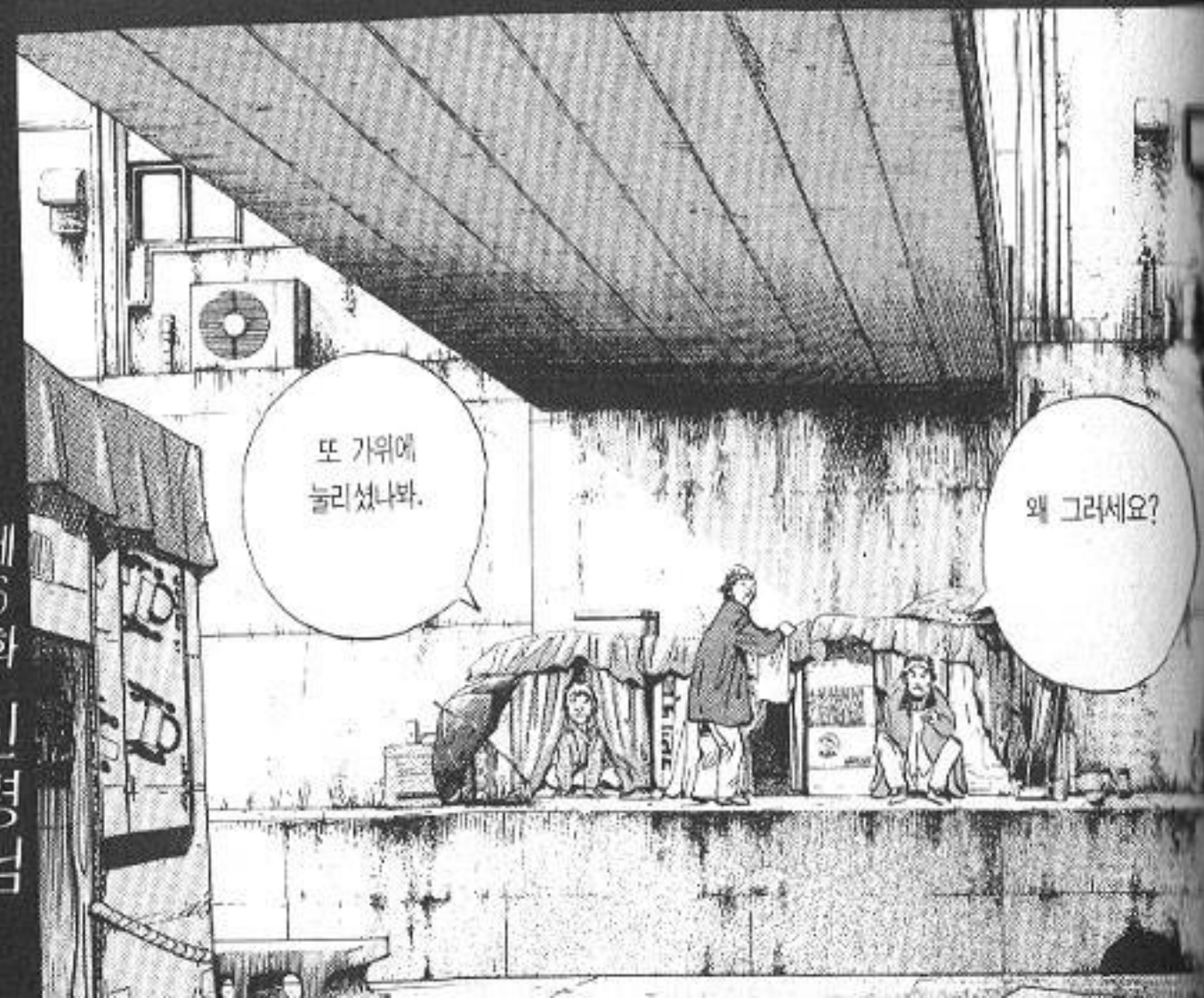


우와아
아아아
아아!!

으아, 으,
으아!!

으...
으...

우아아아아아!!



또 가위에
눌리셨나봐.

왜 그러세요?

제 6 화 신림그림

2000년 12월,
인류는 멸망한다.







하지만 맨 처음의 각도가 2, 3도만 틀어지면...

18.28m의 핀까지 갔을 때 엄청나게 방향이 틀어지거든.



네에.



누구나 공을 라인에 놓는 순간은, 한가운데로 갈 줄 알지.



허어...

스트라이크와 골로 빠지는 공의 차이는 기껏해야 그 정도지.



헤드 핀에서 한쪽 끝까지 53cm.



그럼 이만.



...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신령님 얘기는 좋은 얘기거든.

이걸 드리고 신령님의 얘기를 들으려고요.



무슨 공양 바치는 줄 알아!

신령님 몫을 먹으면 우리가 천벌받아요.

너무 그러지 말고 이거 드세요.



작작 작작

듣고 싶어요 ~

언제나처럼 볼링 얘기밖에 못하는데.

듣고 싶어요~.

내 얘기를 들어도 별 수 없어.



허허.

볼링 레인은 말이야, 폭 1.06 m야.

하는 수 없지. 아침부터...



다들 스트라이크를 노리며 공을 던지지.





네,
어서 오세요...



뉴욕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



어허,
원95 다음엔
98이야?
빌 게이츠도
제법이군...

닛케이 평균지수
150엔...



쫓아내라고
한들...



주꾸미



쫓아내 버려.

뭐...
뭐야?



어...
저요?



하마 씨에게
일러 줘야겠군.



그치~?

좋은
얘기야~.



아...
그렇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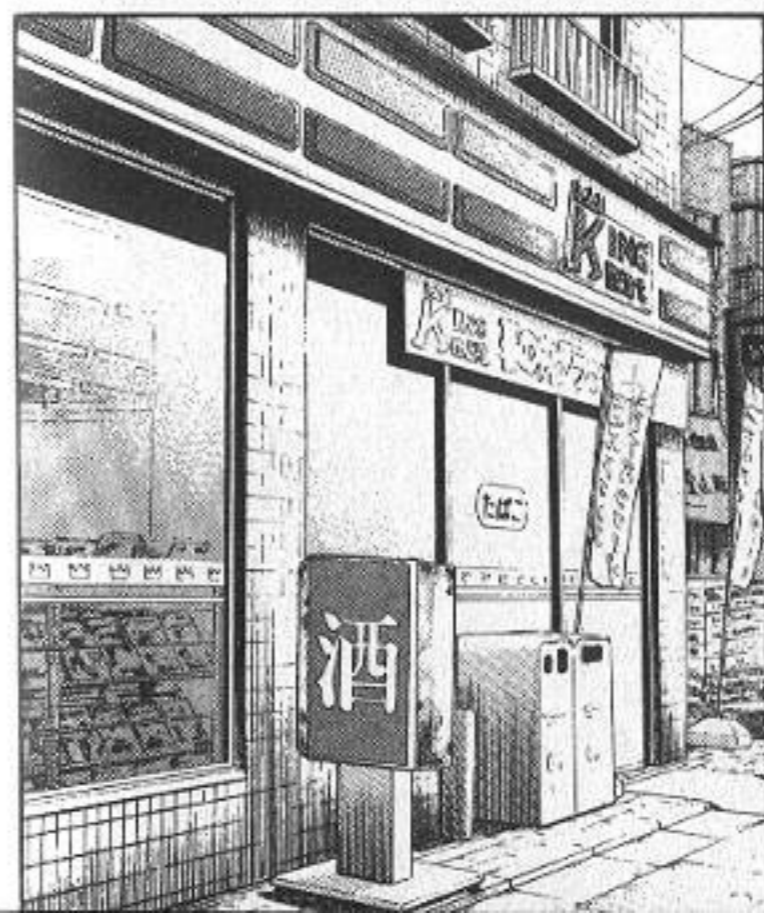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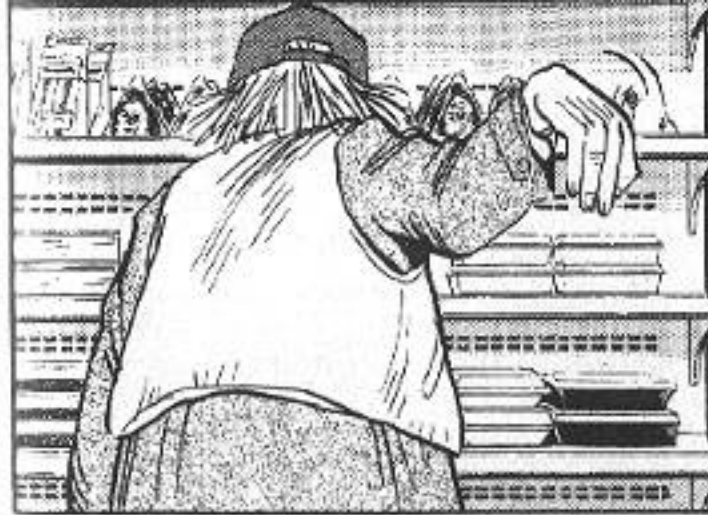
무슨
소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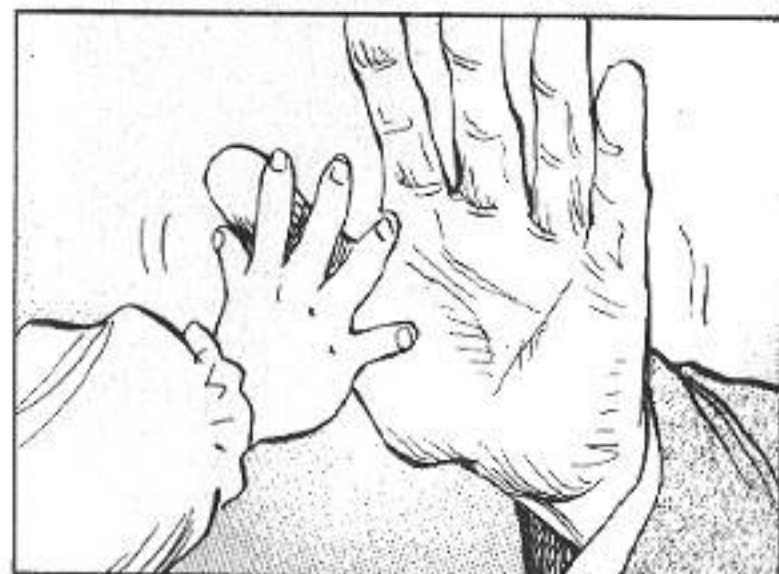
애들?



애들을
조심해.









아욱!

아우!



눈에
거슬린다구,
거지야!!

이 거지!!



강에
빠지는
수가
있어!

길에서 자지
말란 말야!



그 정도로
해 두게.



아우~



너도 같이 강에
빠뜨려 즐까?

넌 뭐야,
영감탱이!



무슨 일이
일어나
우리 연봉이란...

그래도 우리
괜찮아.



네이..



이런
기니까...



여상보래
더 빨리
일이 터진 건가
...?

응-?



아아,
그 큰일
이었어?

하.. 허마 씨가
공원에서
원 애들한테...!



크...
큰일났다-!!



맨날
엄마 지갑을
뒤져서
오락실에서
써 버리고,



잘 들어, 불링에서
스트라이크를
때리려고...



받으면
큰일날걸.



엄?



코이치가
누구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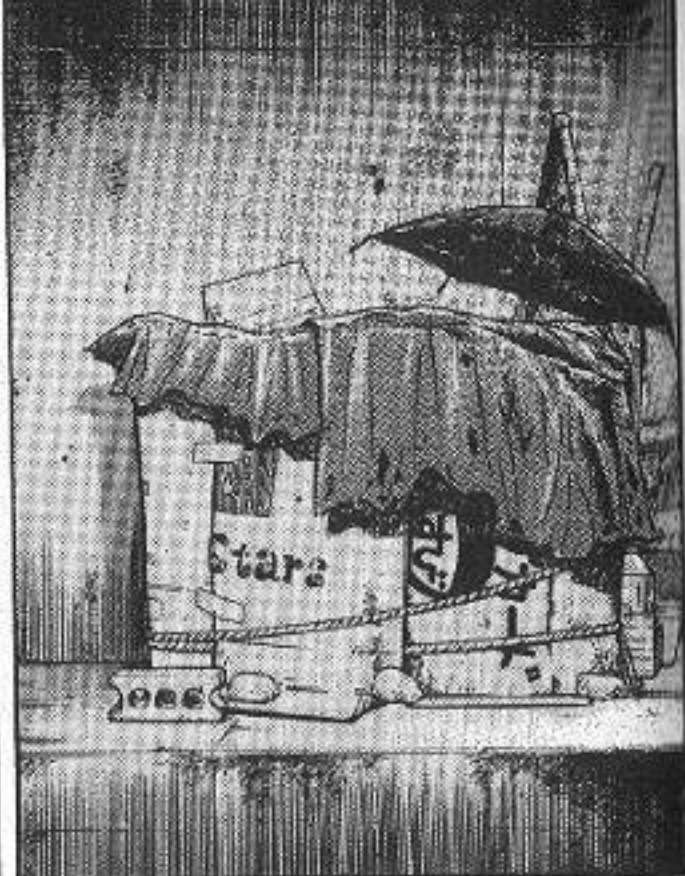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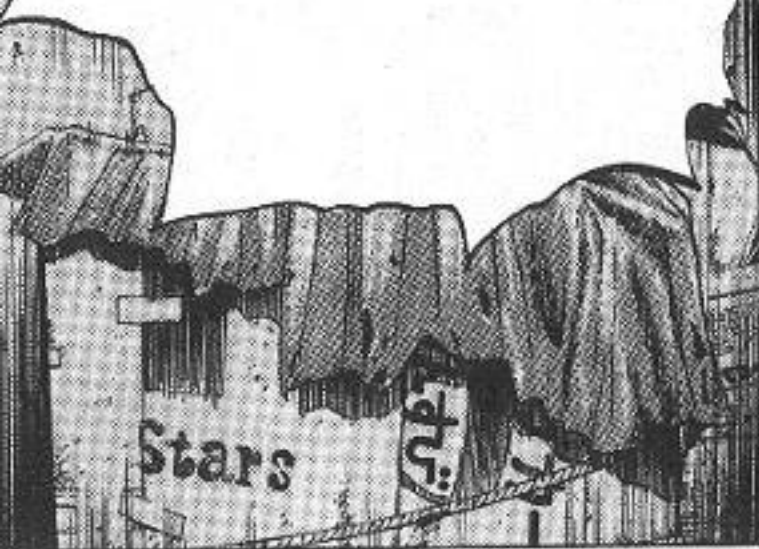


네가
후미야냐?



너, 오늘도
밖에서 햄버거로
때웠지?

우아아아아아!!



또... 또 그 꿈이야...!



역시 모두에게는 잠자코 있어야지...



이런 무시무시한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게 차라리 나아...

쿵-쿵- 하고 괴물이 나타나서...



그렇게 되면 좀처럼 점수 내기가 힘들어.

양 끝에 핀이 남아서, 빅 2라는 스플릿이 되지.



뭐... 뭐야? 신령님이라니.

가... 기분 나쁘게.



알겠나? 무슨 얘긴지.

한기운데에서 비껴 나갔다고 너무 걱정 마, 약간 비키는 정도가 좋다구.



애들을 조심하라는 게 이 얘기였구만요...

시... 신령님요~ 또 맞았구만요.



모르겠다면 더 자세히 얘기해 줄까? 턱 핀이 하나만 남았을 때는...



정말요?

히마 씨, 돌아가서 자게. 내일은 그러저럭 관심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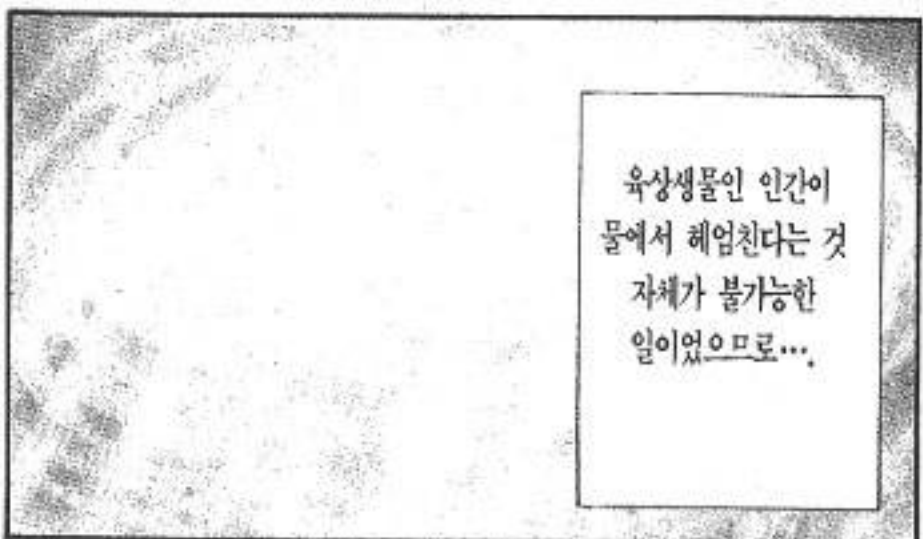
아무튼 내일은...

가... 가자, 기분 나쁘다 ~!

이... 이제 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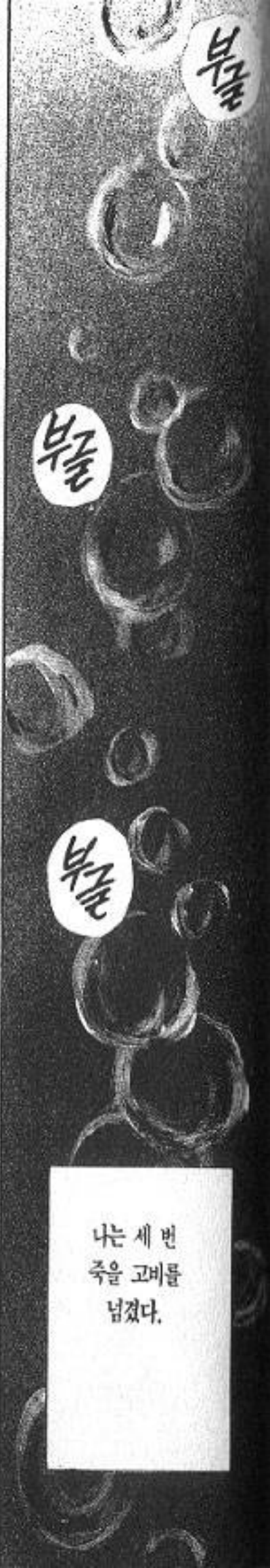
그 중 두 번이
강물에
빠졌을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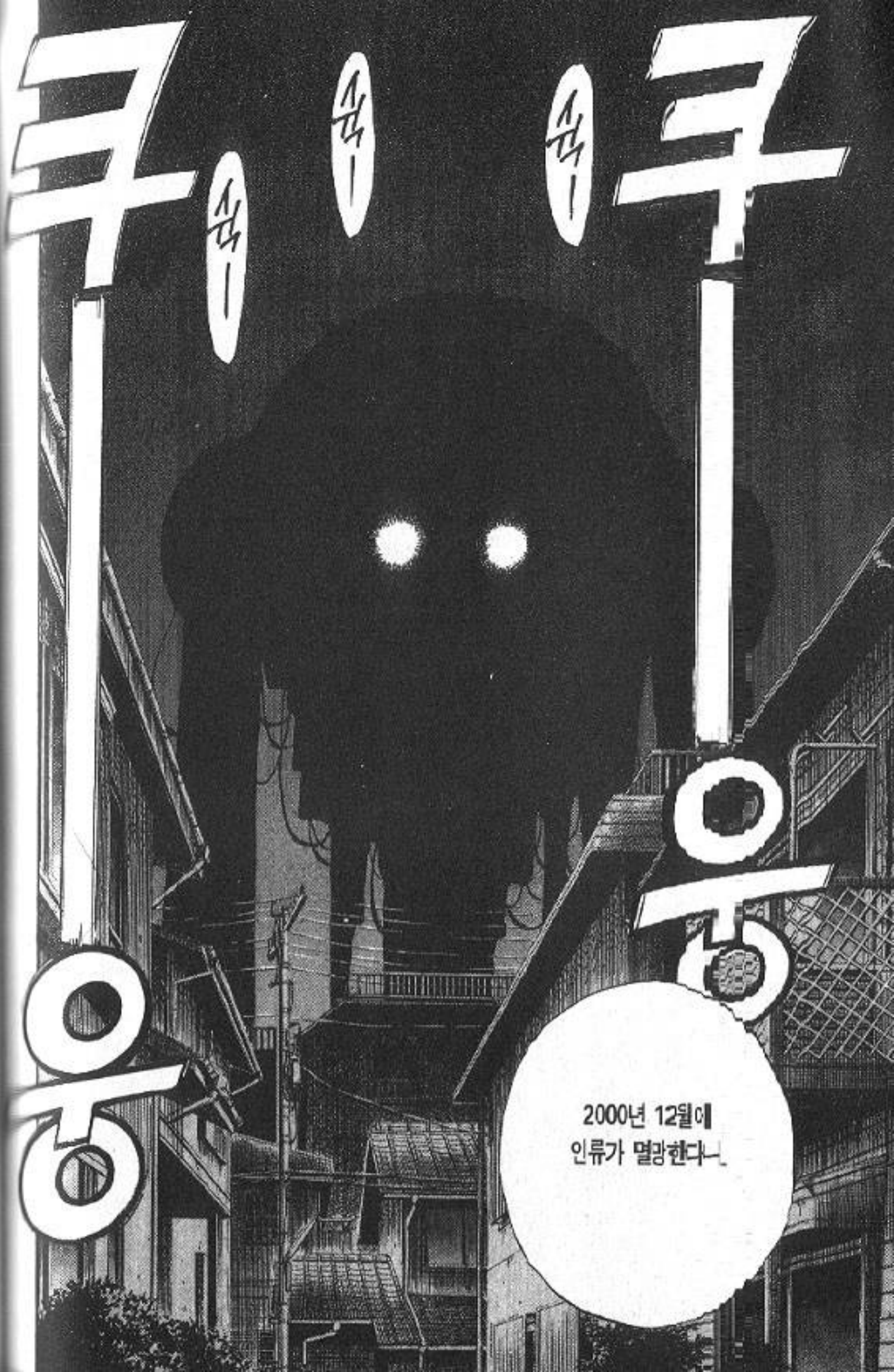
육상생물인 인간이
물에서 헤엄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으므로...



물론 나 역시
헤엄을
못 친다...



나는 세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2000년 12월에
인류가 멸망한다.

그런 얽은 곳에서
죽긴 왜 죽니?

나 죽어~!!

장차 지구의 위기를 구할
이 나의 귀한 생명을
구한 것이 누나였다.

제7화

누나의 서랍

축축해

축축해



어히오헤요옹~.



고맙습니다아~.

점장,
이 가게의 매출이
늘지 않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
말입니다.
이것!



죄... 죄송합니다.
우리 아르바이트
메리카가 발음이
나빠서...



이거...
라노?





편의점 따위를 하니까 재수가 없는 거지.



그냥 술 가게만 했으면 좀 좋아?

네 아버지 가게를 없애 버리니까 천벌 받은 거야.



누나...



탁아소도 돈이 좀 들어야지...

정말 싫다...



그 애를 끼고 밤새 장사를 하다간 우리가 쓰러질 테니까.

하지만 할 수 없어.



일도 변변히 못하는 아르바이트한테 월급 주기도 벅찬데, 탁아소 비용까지...



어떤 놈의 핏줄인지도 모르는 애를 딱하니 맡겨 두고...

정말, 키리코 개도...



회사에선 맨날 잔소리만 듣고, 돈은 돈대로 갖다 바치고,

그러게 내가 뭐랬니? 편의점 같은 건 절대 반대랬지.

잘 먹었습니다 ...





자,
팬티도
벗고!

왜 또
강에
빠졌어?



누나가 맨날
강물만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잉! 잉!



울지 말고
셔츠나
벗어!

으잉!
으잉!



장구
벌레?

장구
벌레.



누난
필 보는 건가 해서
들여다보다가
떨어졌단 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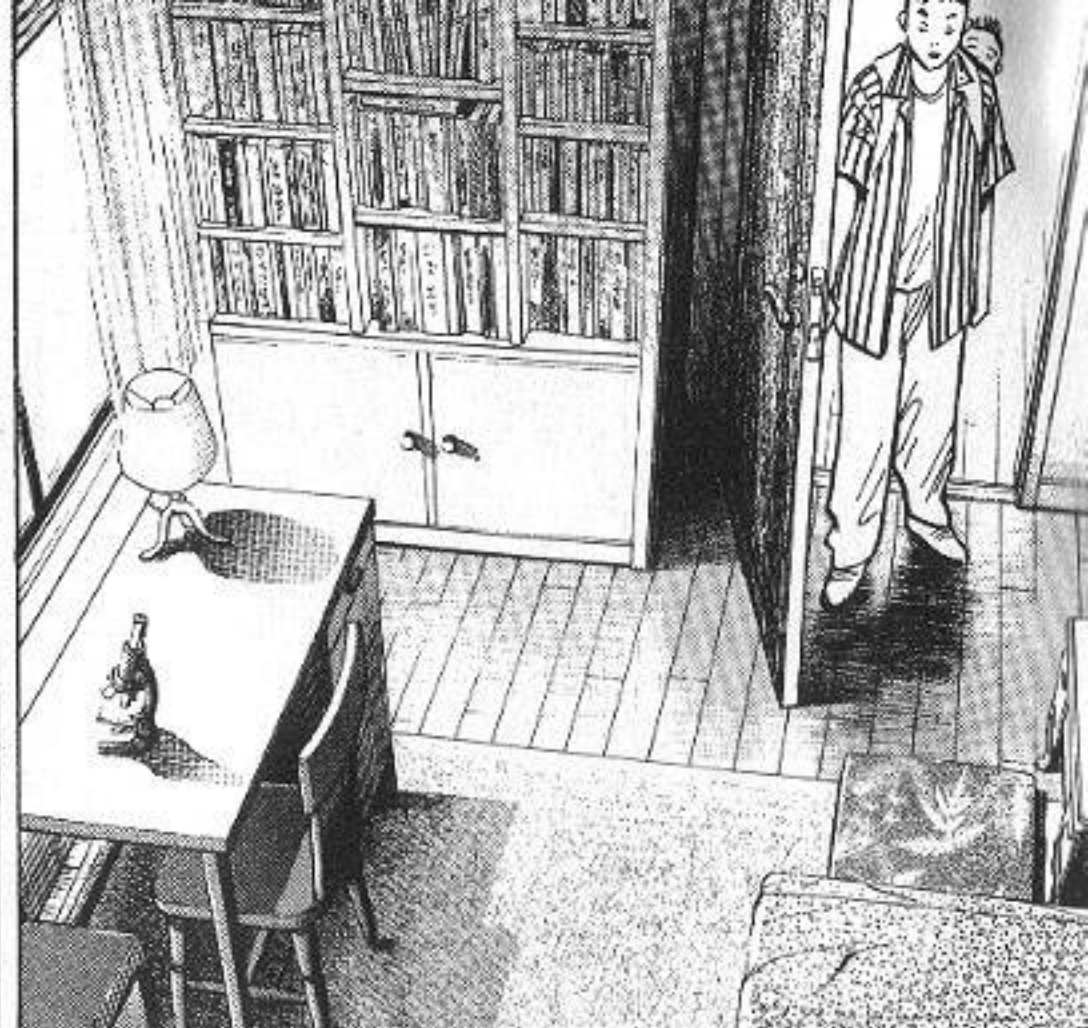
에에...

에...
에에...

귀엽거든,
물 속에서
꼬물꼬물하는 게.



음마~.



이제 곧
돌아올 테니까...

걱정 마...
네 엄마는...



키리코!
켄지를 강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또 강에
빠졌지?!



어... 엄마랑
아버진...?



그런 멍청이는
아들도 아니라고
가셨어.



아... 아니,
오토바이로
넘어져서...

보면 알아.
살아난 게 가적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진짜 진짜!



그렇겠지
...



사과라도
사 올게...



그 꼴을 하고도
배는 고프가
보지.



이...
일단은
살아
있으니까...



흠뻑 젖은 누나는
그 후 감기로
1주일이나
누워 있었다...

흠뻑.



푸해취이이!!



애앵

애앵



애앵

애앵

애앵



아...

비보야.



뭘 한 거니?
너.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키리코 씨, 당신이 내 프로젝트를 거절한 것은 큰 쇼크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누나한테 결혼까지 신청했어.



그 날은 누나가 지망하던 대학의 시험 날이었다는 것을, 나는 한참 후에야 알았다...



“당신 앞에서 떠나는 제 마지막 인사를 받아 주세요.”

“아버님을 잃고 가업인 술 가게를 운영해야 한다는 당신의 마음...”



...그리고, 그때 나는...



...라고. “부디 행복하십시오”



네 엄마는 대학에서 장구벌레 연구라도 하고 싶었는지도 몰라...



이런 남자와 사귀고 있는 줄은 몰랐어...
봐, 일류기업 엘리트의 편지야.



그래... 여기 편지가 들어 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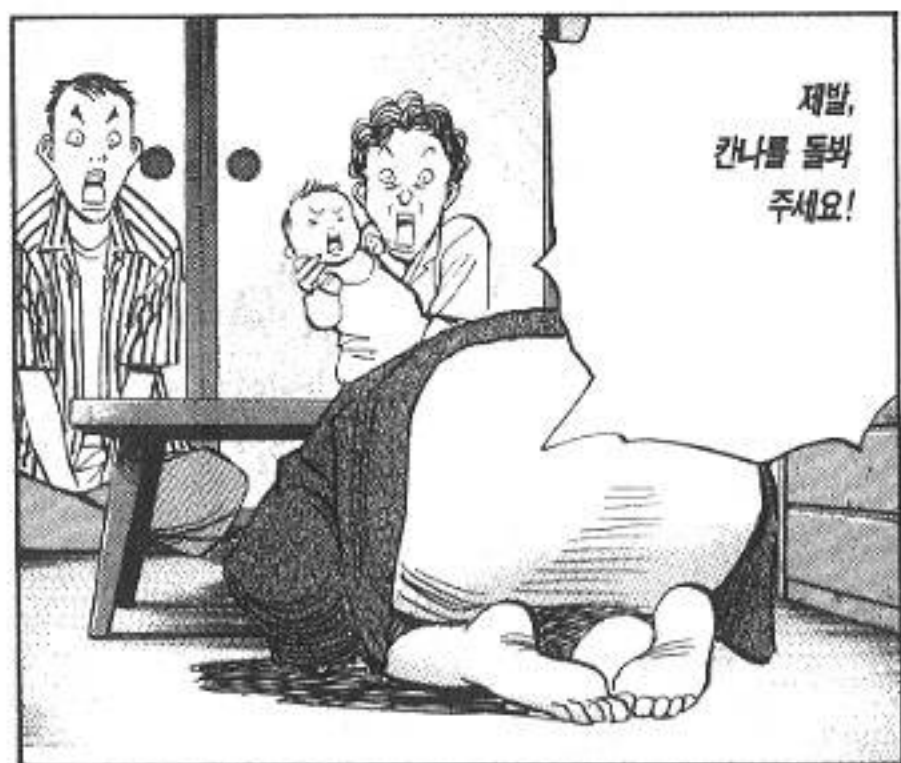
행방불명이 됐을 때, 무슨 단서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읽어 봤지.



누나는
쭈욱...



나는 쭈욱
내 멋대로만
살았는데...



제발,
간나를 돌려
주세요!



제발
이 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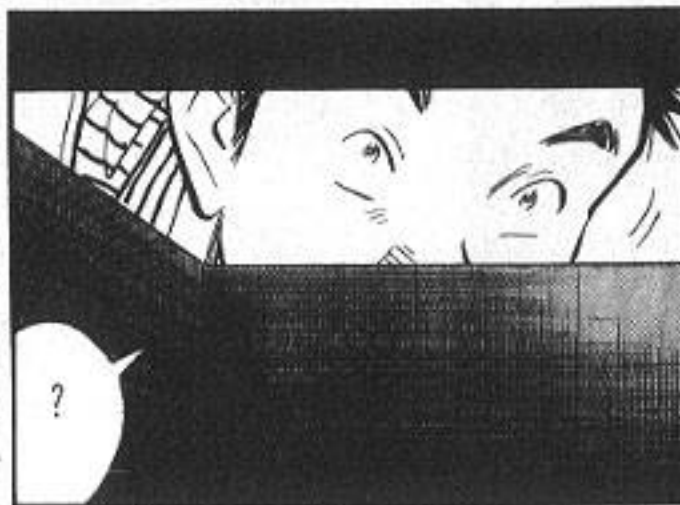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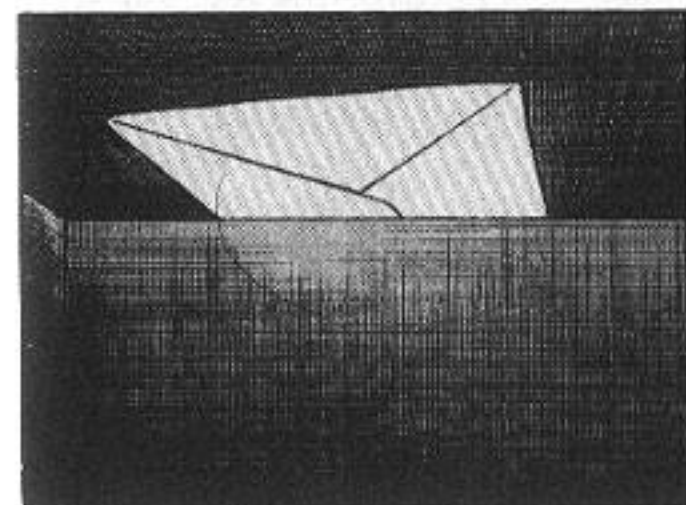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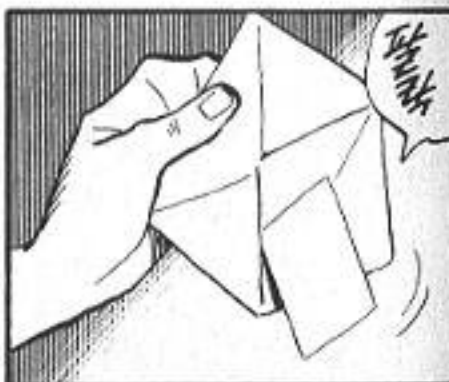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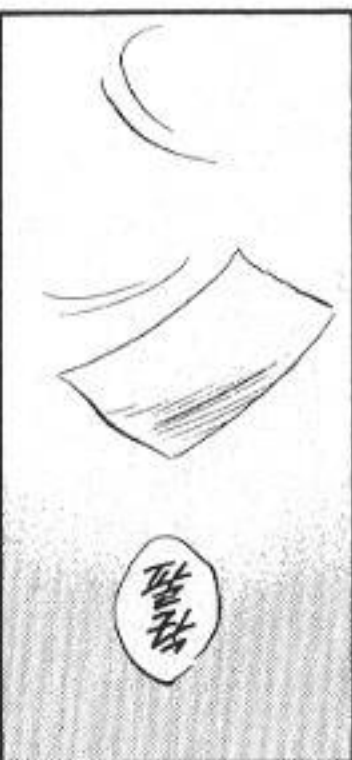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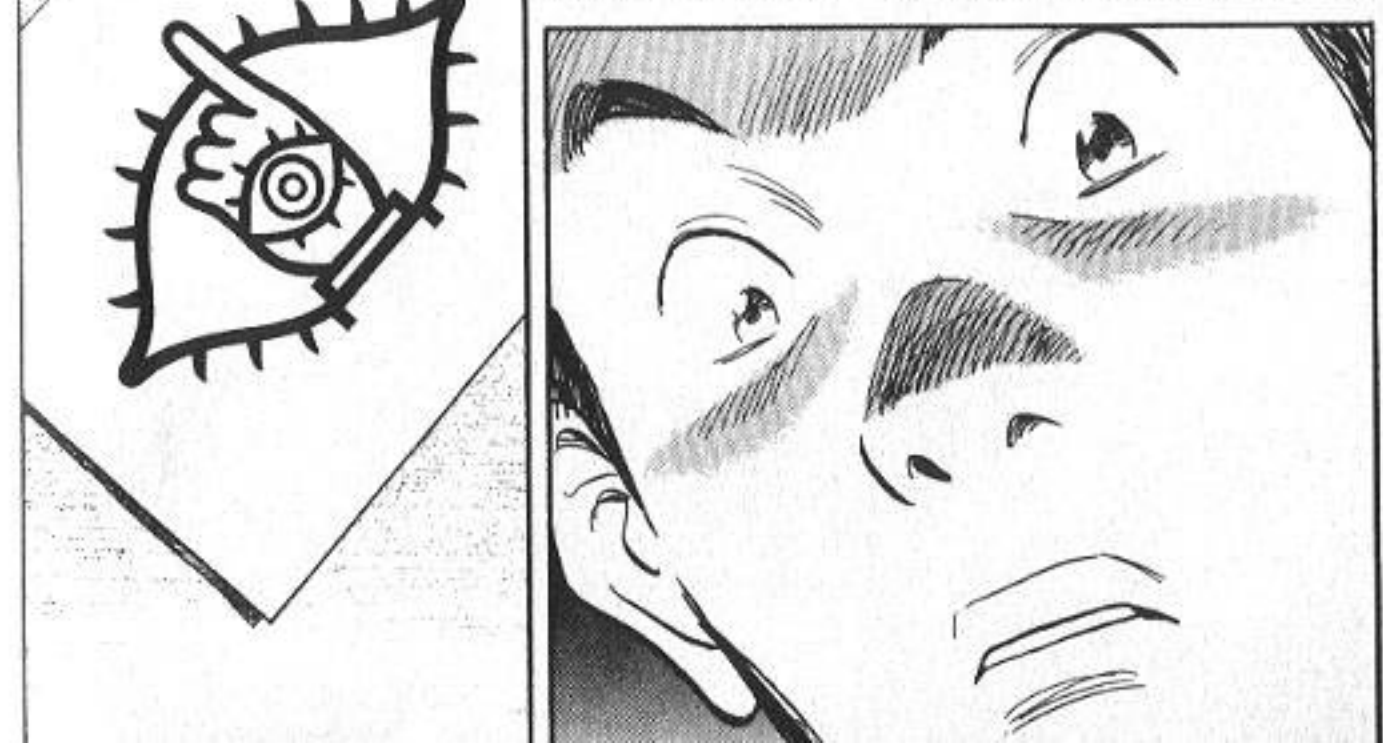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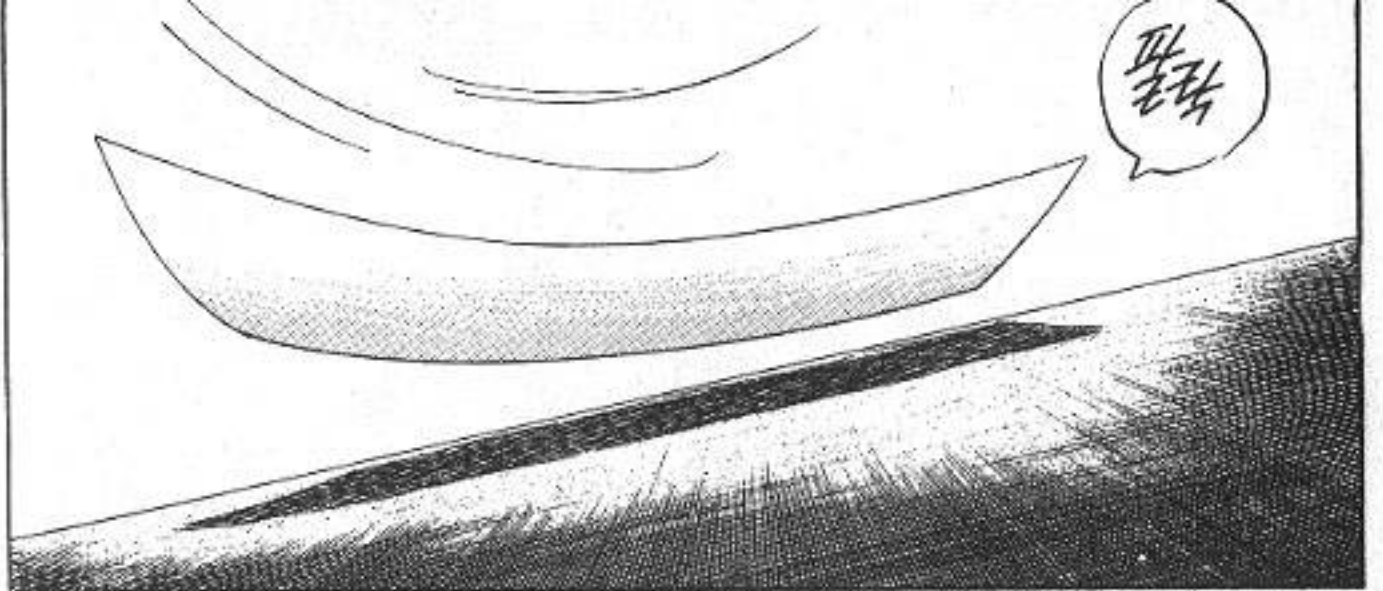
누나가 고집을 부린 것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 한번 뿐이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누나...





제 8 화 누나의 연인

중학교
3학년에게
그 액수는
천문학적이었다
...

2만 6천
엔 짜리
전기 기타
...

¥ 26000



이 무기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나는 무적인데...

¥ 26000

그래...
내가 밴드를 하게 된
계기는 누나와
많은 관련이
있었다.

뭘
중얼거리는
거니?

뭐랄까...
내가 이런 걸 하는 건,
누나한테도 원인이
있으니까...

가게라면
누나한테 맡겨.

제8화 누나의 연인



칸나를 탁아소에 안 맡기면 편의점 계약을 끊겠다고 말하러 왔구나?

아아 ...



어쩔 설이니? 빛도 산더미 같은데.

아아 ...



그 자식이 또 왔어, 본사 영업부의 오오다케가!



누나는 왜 그렇게 나를 잘 돌봐줬었어?



엄마...



뭐냐?



태어나기 전에...?



네가 그... 태어나기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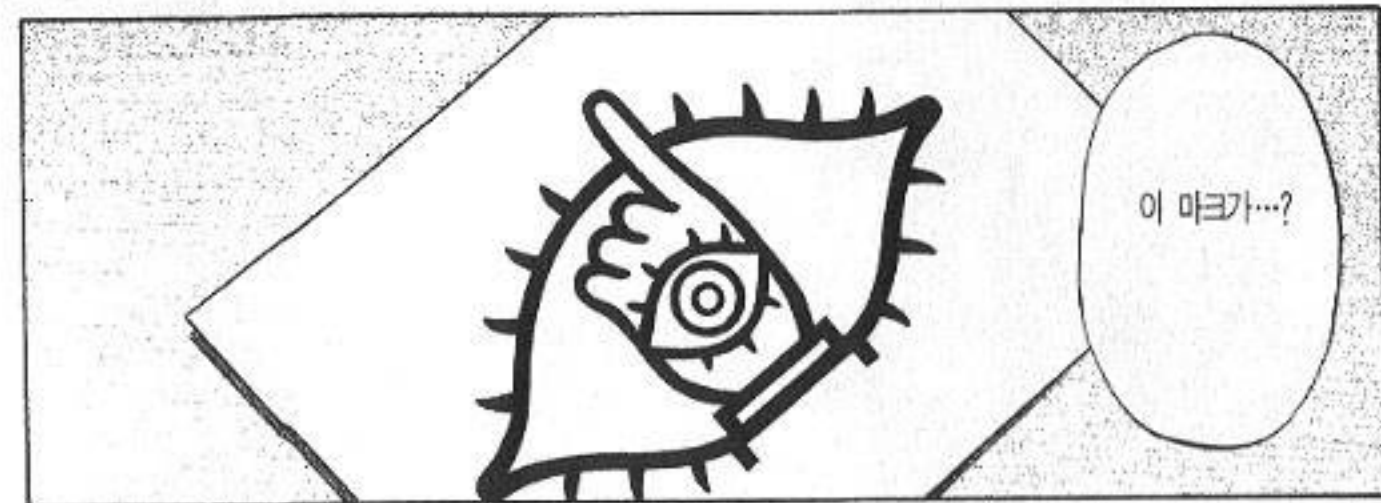
아... 그거야 저...



누나 앞으로 온 편지 속에...



왜...



이 마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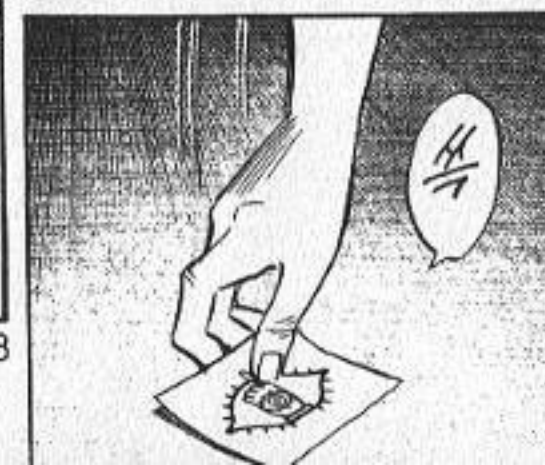
응... 아, 저기... 왜? 엄마...



뭐야, 너 키리코의 방에 있었니?!



켄지!!



썩



아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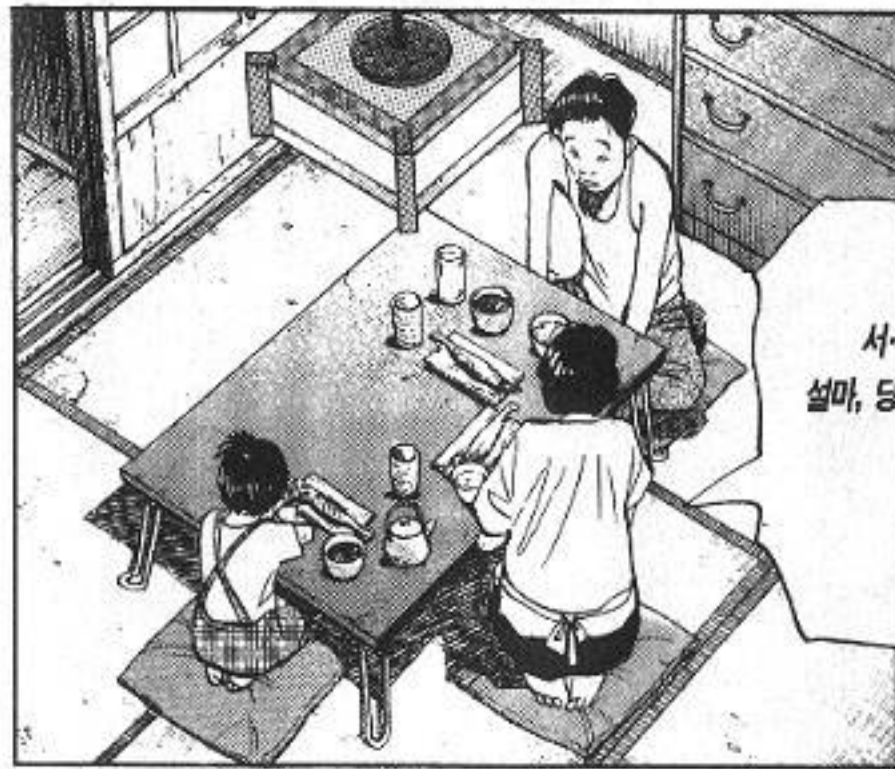
아~ 라니,
돈도 없이
어떻게 이 들을
키워!



아~



배... 뱃속에
든 아이는
어찌고!



서...
설마, 당신!!

1959년 -



나도 다시
죽어라 일을
해야 하고...

하아 ~



하...
하는 수 없지,
이번엔...



하아~

하아 ~



**내가
엄마 할게!!**

!!



하는 수...
없네...



모르는 사람은 주식에 손대지
말라고 하더니만,
진짜가 봐~.

그래...
완전히
날렸어.



꿈을 꿔나 해서
자고 일어나
봤는데,
꿈이 아니었어...

거짓말이
아니야...



우, 우리가
필사적으로
저축한 돈을...



그래...
송두리째
날아갔어...



이젠
빈털터리유
?